

傳統韓屋과 現代住宅에 있어서 室內造景의 比較研究

閔美惠 · 沈愚京

高麗大學校 自然資源大學院 造景學專攻

A Comparative Study on Interior Landscape between the Korean Traditional and Modern House

Min, Mi-Hye · Sim, Woo-Kyung

Major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Natural Resources, Korea University

ABSTRACT

Presenting desirable direction of Korean interior landscape, the present studies were performed to survey the status of interior landscape of the Korean traditional and modern house in order to compare each other about the landscaping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terior landscape of traditional houses put emphasis on mental aspects through furnitures, decorative elements, symbolic signs, paintings, writings, and moderate plants.
2. Interior landscape of modern house accentuated visual beauty by using westernized furnitures and decorative elements, and exotic plants.
3. These days we abundantly use exotic interior plants, but we need to develop native plant materials which have visual values and are well grown.
4. It is suggested that we should make efforts to find and develop Korean interior landscape style which succeed from traditional interior landscape that has more accentuated on mental aspect.

I. 緒 論

본 연구는 현대 우리의 室內造景이 서구문명의 무비판적인 도입으로 인해 전통과 단절되고, 가구나 실내소품들이 너무 시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으며 식물소재에 있어서도 거의가

외국식물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적인 室內造景의 비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室內造景이란 실내의 空間構成과 動線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요소들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의 室內空間을 보다 쾌

〈표 1〉 전통한옥의 조사대상지

일련번호	문화재 지정현황	위 치	명 칭
1	중요민속자료 제174호	경북 예천군	勿替堂
2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경북 예천군	醴泉權氏宗宅
3	보물 제414호	경북 안동군	忠孝堂
4	보물 제306호	경북 안동군	養眞堂
5	중요민속자료 제84호	경북 안동군	河回北村宅
6	중요민속자료 제87호	경북 안동군	柳時柱家屋
7	중요민속자료 제90호	경북 안동군	南村宅
8	중요민속자료 제91호	경북 안동군	主一齊
9	중요민속자료 제177호	경북 안동군	河東古宅
10	중요민속자료 제185호	경북 안동시	固城李氏宗宅
11	중요민속자료 제183호	경북 안동군	東權氏陵洞齊舍
12	중요민속자료 제178호	경북 안동군	日省堂
13	중요민속자료 제180호	경북 안동군	募先樓
14	지방민속자료 제39호	경북 안동군	令監宅
15	중요민속자료 제179호	경북 안동군	參奉宅
16	중요민속자료 제181호	경북 안동군	栗里宗宅
17	보물 제553호	경북 안동군	禮安李氏宗家
18	보물 제475호	경북 안동군	蘇湖軒
19	중요민속자료 제175호	경북 예천군	晚翠堂
20	중요민속자료 제27호	경북 경주시	崔植氏家屋
21	중요민속자료 제23호	경북 경주군	孫東滿氏家屋
22	중요민속자료 제73호	경북 경주군	樂善堂
23	중요민속자료 제74호	경북 경주군	李源鳳家屋
24	중요민속자료 제75호	경북 경주군	李源鏞家屋
25	중요민속자료 제76호	경북 경주군	李東琦家屋
26	중요민속자료 제77호	경북 경주군	李熙大家屋
27	중요민속자료 제78호	경북 경주군	守拙堂
28	중요민속자료 제79호	경북 경주군	二香亭
29	보물 제412호	경북 경주군	香檀
30	충남 유형문화재 제83호	충남 예산군	李廣壬先生古宅
31	충남 유형문화재 제68호	경남 예산군	李南珪先生古宅
32	충남 유형문화재 제43호	충남 예산군	金正喜先生古宅
33	중요민속자료 제198호	충남 홍성군	趙應植家屋
34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충남 논산군	尹拯先生家屋
35	중요민속자료 제26호	충남 정읍군	井邑金東洙家屋
36	중요민속자료 제207호	충남 합양군	許三斗家屋
37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충남 합양군	鄭炳鎬家屋
38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충남 부여군	閔七植家屋
39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충남 고창군	鄭蘊先生宗宅
40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충남 아산군	尹普善前大統領生家
41	중요민속자료 제106호	경북 청도군	淸道雲岡古宅
42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경북 선산군	崔相鶴氏家屋
43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원도 강릉시	船橋莊
44	보물 제165호	강원도 강릉시	鳥竹軒
45	중요민속자료 제24호	경북 영천군	鄭在永氏家屋

적하고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조에 이르러 그 당시국교로 삼았던 儒敎와 당시 유행되었던 風水圖讖說의 영향으로 독특한 정원양식을 확립(윤국병, 1982)하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바, 이와 아울러 실내에서도 그림이나 글씨의 감상, 가구의 문양, 창틀을 통한 借景의 방법 등으로 그 당시의 건축적인 요소와 잘 어울리는 室內造景을 한 것으로 엿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室內造景內인 요소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조사하고 또 현재의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전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현대로의 올바른 계승을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인 室內造景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研究範圍 및 方法

傳統韓屋과 現代住宅의 室內造景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文化的,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인 배경과 함께 地域的인 특성까지 고려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겠으나, 傳統韓屋의 경우 시간적인 제약 이외에도 여러번의 외침으로 인한 형태의 파괴, 외래문화의 침투로 인한 보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원형의 보존이 잘 이루어진 현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傳統韓屋의 경우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李朝時代의 것으로 하되(김원룡, 1968), 일제의 영향이 적은 1910년 이전의 것을(윤국병, 1978), 現代住宅의 경우에는 건축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1992년 봄부터 1993년 가을까지 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傳統韓屋과 現代住宅 각 上流住宅(정인국, 1974)의 실내이며 傳統韓屋의 경우 文化財(寶物, 重要民俗資料, 有形文化財)로 指定(文化公報部)되어 있어(문화재관리국, 1982), 資

料收集과 考證이 용이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現存傳統韓屋 45개소를, 現代住宅의 경우 서울과 부산시내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하되, 단독주택은 건평 198m²(60坪)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165m²(50坪) 내외의 2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대상지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2).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먼저 조사대상지의 실내 空間構成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 空間의 構成을 平面的 構成과 立體的 構成으로 나누고, 傳統韓屋의 경우 上流住宅의 공간구성의 전형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실내의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들—그림이나 글씨, 가구, 文房四友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실내에서 창틀을 통한 외부로의 眺望도 바람직한 室內造景의 요소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았고, 室內造景의 주요 소재인 식물에 대한 도입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傳統韓屋의 경우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지답사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

〈표 2〉 현대주택의 조사대상지

일련번호	유형	위치
1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	단독주택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	단독주택	부산시 남구 남천동
5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6	단독주택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	아파트	부산시 남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8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3차아파트
10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피아아파트
11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한신아파트
12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파아파트
13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우성아파트
14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15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익아파트
16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올림피아아파트
17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피아아파트
18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19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20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해청아파트

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동시대에 있지 않는 대상을 비교하는데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며, 늦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유적을 연구 기록에서나마 이해하며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었다.

Ⅲ. 結果 및 考察

1. 室內 空間構成과 裝飾物

1) 傳統韓屋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택을 가리켜 대개 韓屋이라 부르는데(신영훈, 1983), 전통한옥의 실내 공간구성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조사대상지가 되었던 李朝 上流住宅의 개념과 空間構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上流住宅은 소위 兩班階級이 거주하던 주택이다(정인국, 1974). 李朝의 신분제도는 매우 엄격하여 계급에 따라 지위, 직업과 대우가 다른 것은 물론 거주지 까지도 달랐다. 그 당시의 계급을 대별하면 兩班·中(庶)人·常人·賤人의 네 계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중 양반은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 관리로서 혹은 상급의 사회계층으로서 권력에 참여하는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이었다. 이들 양반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마을의 토호적, 교화중심적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에 생활양식도 주생활의 기본이 아닌 여러 잡다한 생활기능이 가미되었다.

(1) 室內의 平面的 空間構成

상류주택은 그 평면이 하나의 채를 단위로 분화되는데, 이는 李朝時代의 송유정책에 기인한다. 송유정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특색은 남녀의 엄격한 구별이었고 이는 주택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크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로 두어 남녀를 격리시켰고,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류주택의 공간은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별당채·사당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채들은 성별, 계급적, 기능적 분할이 뚜렷하였다(김란기, 1986).

가. 안채

안채는 일반적으로 안방·옷방·대청·건넌방·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안방

안주인의 일상거처이고 또 밤에는 침실이 된다. 이 공간은 직계존속이외의 남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내외법에 따른 것이다(주남철, 1980).

② 옷방

옷방은 안방 옷목에 인접한 방으로 보통 이웃방과 안방 사이에는 네쪽의 미닫이창호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 열어 놓는다.

③ 대청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방으로 출입하는 전실 기능을 갖는 동시에 여름에는 시원한 거처가 된다. 또한 집안의 대사때에는 이 대청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안방과 대청사이, 대청과 건넌방 사이에는 모두 들어열개로 된 불발기를 달고 안마당쪽에도 들어열개로 된 복합문을 달아 여름에는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단다.

④ 건넌방

머느리의 방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건넌방 앞에는 보통 누마루를 만들어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형성해 준다.

⑤ 부엌, 반딧간

상류주택, 특히 지방의 상류주택에서는 부엌이 대, 소로 두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는 조리를 위한 주된 부엌이고, 다른 하나는 방에 불을 때기 위한 아궁이의 성격을 부엌으로 전환하여 평상시 더운물을 끓이며 때로는 조리도 하였다. 상류주택 가운데서도 특히 대가라 일컫는 큰 주택에서는 부엌자리에 위에는 누다락을 설치하고, 아래에는 안방에 불을 때는 아궁이를 만들고, 부엌은 반딧간으로서 독립하게 하였다.

나. 사랑채

사랑채는 사랑방·대청과 누마루·침방·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랑방

주인의 일상 거처실이다. 朝鮮時代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였던 만큼 상류주택에서의 사랑방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상류주택의 주인은 중앙관서에 출입하는 현재의 고위층이거나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서부락 또는 문중을 대표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방면의 교류가 활발하다. 그리고 이 교류는 통상 이 사랑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방의 기능은 주인의 일상거처는 물론 내객의 접대 및 문객들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② 대청과 누마루

대청은 사랑방과 누마루에 출입하는 전실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여름에는 시원한 거처실이 되었다. 여름에는 창호를 모두 들쇠에 매단다. 누마루는 朝鮮時代 상류주택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적 공간으로 대청에서 바깥쪽 간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③ 침방

사랑방 옆에 붙은 침방은 주인의 일상 취침공간이었다. 주인은 부인과 동숙할 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이 방에서 취침하였다. 이는 朝鮮時代가 유교정책에 입각 內外法을 적용, 太宗組부터 부부의 별침을 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민주택에서는 사랑방이 침방을 겸하였고, 중, 상류주택에서는 침방을 따로 건축하게 된 것이었다.

④ 서고

서고는 단순히 서책을 보관하게 된 것과 서책 보관은 물론 독서를 겸하게 된 것 등 두 형식이 있었다. 서고를 독립하여 건축하지 않을 때에는 사랑채에 부속된 방을 이의 보관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랑방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 사당채

朝鮮時代 승유정책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특색은 주택건축에 나타난 가묘제이다. 적어도 중인계급 이상에서는 별동으로 사당을 건축하고 신위를 모시게 되었다. 이로써 朝鮮時代의 주택건

축에는 사당이라는 제사공간이 생기게 되어 공간 구성에 한 특색을 가하게 되었다.

라. 기타 부속건물

부속건물의 행랑채는 하인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서민주택의 내부공간구성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밖에 별당과 산정사가 있는데 이중 별당은 안사랑으로 주인이 사용할 때는 사랑방에 준하고, 여성일 때는 안방에 준하게 되었다. 산정사는 주인만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사랑방에 준하되 書·畫·琴·棋를 四友라하여 서화와 가야금, 바둑을 갖추어 놓았다고 한다.

2) 室內의 立體的 空間構成과 裝飾物

傳統韓屋의 실내는 온돌로 인한 평좌생활의 영향으로 천정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아 가구들이나 그 밖의 장식물들은 부담감을 덜고 보다 많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고 간결하게 제작되었다(김원하, 1989. 박영규, 1989). 書案·硯床·財板 등 방의 중심에 놓여지는 가구들은 공간 활용에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고 文匣·머리櫥 등이 모두 키가 낮고 세로폭이 얇은 것은 평좌자세에서의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며, 櫥이나 籠·四方卓子 등이 간결하게 제작된 것도 좁은 실내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남녀유별의 관념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이 나뉘어져 개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실내공간중 중요도가 높은 사랑방과 안방의 입체적 구성과 그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에 대해 고찰하고(배만실, 1975),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각각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장식물중 盆裁나 蘭과 같은 식물적인 요소는 현대와 비교하는데 있어 현대에서의 비중이 커진 바, 분리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가. 안방

안방은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가족의 의·식·주를 전담하는 가정의 중추부이었다.

안방의 바닥은 온돌에 장판지로 마감하고 장판 지에는 콩기름을 먹여 윤기가 흐르도록 하고 내수성을 갖게 하였다. 사면 벽은 벽지로 마감하고, 천장은 휴지로 초배를 하고 중배지로 두꺼운 종이를 바른 다음 정배지로 청색, 녹색, 오색등의 여러색 중에서 골라 사용하였다.

아랫목은 주부의 자리로서 다락문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를 깔고 좌우로 사방침과 장침을 늘어 놓고 편안히 기대앉도록 안석을 다락문쪽으로 놓는다. 보료 앞에는 방석을 놓아 안주인을 찾아온 손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거울에는 이 가운데에 화로를 놓고 인두를 꽂아 두었다.

안마당을 향한 쌍창 아래에는 문갑을 놓거나 아니면 옆마당을 향한 벽에 난 창호아래, 또는 창 없이 벽으로만 된 곳에 문갑 한쌍을 놓았다. 또 반닫이나 장과 농들을 놓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안방 위쪽에 위치한 옷방에 장농류를 놓게 되므로 안방에는 장농을 놓지 않았다.

문갑 위나 반닫이 위에 경대를 놓고 필요할 때에 바닥에 놓아 화장을 하였다. 또 벽에는 빗집고비를 걸어 빗 등속을 보관하기도 하고, 서간고비를 걸어 두루마리를 엮어두었다. 방 옷목 양쪽에는 사방탁자를 대칭되게 놓고 모과 같은 향기로운 과일을 그릇에 담아엮어 두었다.

여성들이 거처하는 안방은 남녀유별 등 사회적 규율에 얽매이고 또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찾을 수 있고,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안방의 가구는 사랑방 가구의 겸소한 분위기와는 달리 여성 취향이 반영된 색이 곱고 밝고 따뜻한 것이 특징이었다.

안방의 가구를 재질에 따라 분류하면 느티나무, 먹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 아름다운 목리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 은행나무·가래나무·피나무에 쉼을 한 조각장, 나무로 된 골재에 종이를 붙여 화초문을 그리거나 종이를 오려 붙인 지장, 형걸에 수를 놓아 판재에 기워 붙인 수장, 영롱하고 화사한 자개를 시문하고 옷칠을 한 나전장, 쇠뿔을 펴서 얇게 갈아낸 투명판에 적·황·녹·백·흑 등의

질은 당채 그림을 그린 화각장, 투명 유리판에 花鳥를 그려 넣은 화초장 등이 있다.

이들 가구에 주로 사용된 紋樣은 自然景觀·花草三綱五倫圖·十長生·吉祥紋·富貴多男·子孫繁昌·喜字·花鳥紋들로서 多產·長壽·和睦 등을 기원하는 象徵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란은 富貴를, 국화나 소나무, 바위 등은 長壽를, 매화, 국화, 대나무 등은 절개를, 석류, 복숭아, 포도 등은 子孫의 繁榮을 의미하였다. 이 문양들을 그림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았다(임영주, 1986)(그림 1).

가구의 문양들이 뒤에서 살펴볼 화계와 함께 외부와 차단된 안방에서의 실내조경적 요소들로 간주되며 정신수양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병풍은 보료 주위에 치거나 밤에 외풍을 막기 위해 창 쪽에 치기도 하였다. 이 병풍은 두 짝부터 열 짝까지 꼭 짝수로 되어 접게 되었는데, 이들은 외풍을 막는 기능과 기밀성을 갖게 하는 기능 외에도 장식적인 효과가 컸다. 병풍에는 화조도나 객분양의 행락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나. 사랑방

사랑방은 주인의 대부분이 학문을 중요시하는 선비였기 때문에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글을 읽고 그림과 시를 즐기며, 후학을 기르는 공간인 동시에 손님을 맞아 인생과 정치를 논하는 사교의 장소였다. 이러한 사랑방의 내부공간은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 소박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필연적이어서 가구나 장식물들도 이에 적합하도록 크지 않은 공간에 단순한 구조, 쾌적한 비례, 간결하고 절제된 분위기의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바닥은 전술한 안방처럼 장판지 마감이고, 벽은 벽지 마감, 천장은 천장지 마감이었다.

朝鮮時代에는 儒敎의 崇尚으로 문방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서안·갑·탁자·책장·필통·연적·향꽂이 등 문방용기가 급격히 발전하였다(정양모,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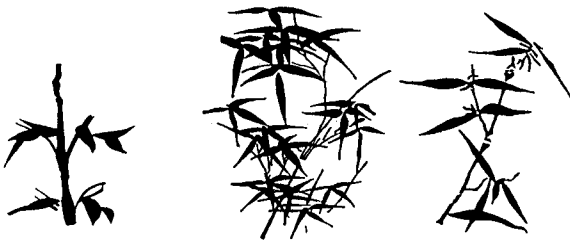
이러한 사랑방 가구들의 배치는 아랫목에 남성의 기백 또는 인생의 좌우명을 나타낸 試·四君子 등과 함께 그 방의 주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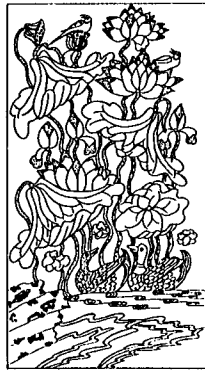
가. 百壽百福



나. 十長生



다. 대나무



라. 蓮花紋



마. 牧丹



바. 瑞花蘭草

(그림 1) 한국 전통한옥의 장식물에 사용된 상징적인 문양들(임영주, 1986)

다.

실내의 중심부인 아랫목에는 글을 읽거나 쓰는 용도 외에 내객과 마주 앉은 주인의 위치를 지켜 주는 서안과 그 측면에 문방사우인 넓은 4각의 목판형 재판이 있어 연초합·타구·재떨이·담배대 등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고 또 단정하게 보이도록 했다.

다락문을 등기고 방 옷목을 향하여 보료를 깔고 좌우에 사방침과 장침을 놓고 안석을 다락문 아랫벽에 놓아 편안하게 앉도록 했다. 보료 앞에는 타구를 놓고 방 옷목에는 책과 문방상완품을 얹어놓는 사방탁자를 쌍으로 좌우에 놓는다.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의 아랫공간이나 측벽면에 문갑을 놓고 중요 기물이나 문방용품을 보관하였다. 이는 서안과 같이 낮게 제작되어 벽면에 시원한 여백을 줌으로 생활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밖에 사랑방의 주요한 가구로 탁자와 더불어 책을 넣어두는 책장이 있는데 대가에서는 서고가 따로 있어 책을 보관하고 있으나 가까이 두고 항상 읽는 책들을 위해 실내에 자그마한 책장을 두고 있었다. 고비는 벽에 걸어 놓고 서찰이나 시전 같은 것을 옆으로 꽂아 두며 벽을 장식하는 일종의 벽장식 가구이었다. 특히 한옥에서 낮은 가구의 배치로 생기는 벽면의 활용에 유용했으며, 문갑·탁자·연상 등과 잘 조화되고 그 방 주인의 취향이나 안목에 맞도록 마련되었다. 이 밖의 사랑방 가구로는 좌등·등가·함·상자 등과 여가를 즐기는 바둑판·거문고 등이 있었다.

가구의 재료로는 광택이 없고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럽고 소박한 질감의 오동나무와 소나무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느티나무와 먹감나무 등 목리가 좋은 나무를 이용하여 자연미를 살리거나 은행나무에 십장생·운학·용문·시·만자·아자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성이 강조되고 귀족적인 품위를 나타낸 것도 있다.

다락문에는 서화를 붙이고 족자가 벽에 걸렸으며 쌍창 위에는 편액을 건다. 또 보료 주위로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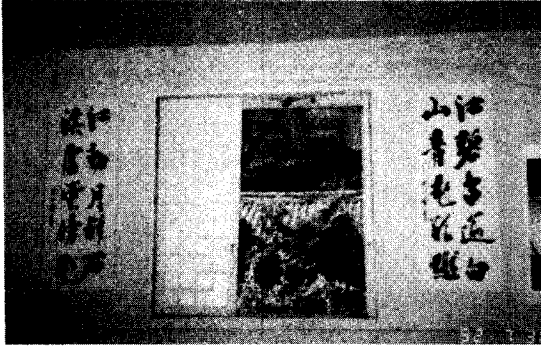
풍을 치고 안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장을 쳤다.

병풍과 족자, 서화는 방은 치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신수양에도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실내조경적 요소로 간주되었다. 병풍과 족자에 관하여 다산 정약용(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은 「반드시 서화의 가품으로써 장성할 것이며 그러나 진채는 담채만 같지 못하고 담채는 단묵만 같지 못하니 침방에 항상 개호병을 세워두면 능히 목력을 기른다」고 하여 서화 치장의 필요성과 묵담채나 수묵화의 상격임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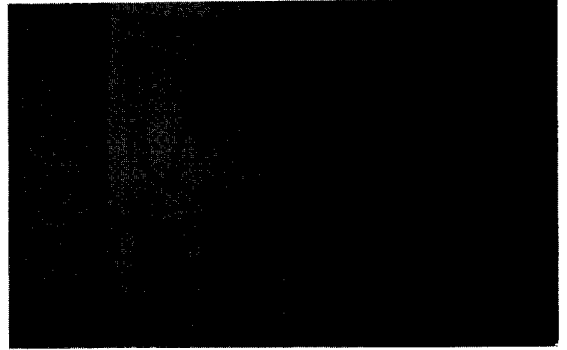
다산(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은 또한 서화에 대하여 별도로 자세하게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서재 안에 기껏 각 일축을 걸어두어 가하나 때때로 바꾸어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림은 춘하에는 추동의 경을, 추동에는 춘하의 경을 보아야 하며 산중에서는 수경을 수거시에는 산경을 본다면 신기를 편안케 할 것이다. 그것은 심히 사람의 눈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서화를 즐비하게 걸어놓거나 붙이는 것은 극히 욕된 것으로 꺼렸으며 조촐하게 한두폭 걸어서 품격을 갖추어 이를 감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傳統韓屋의 사랑방의 실내에서는 소박한 가구와 병풍, 족자, 서화 등도 조촐하게 마련하여서 절제의 미를 강조하고 이를 만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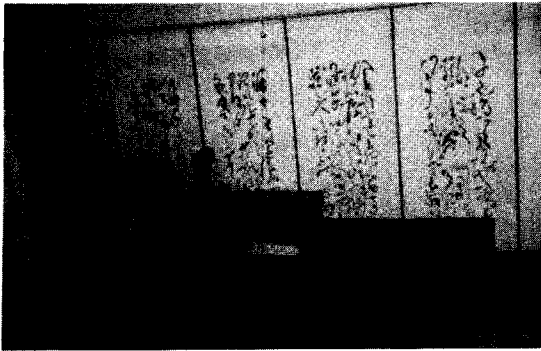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 자료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 고가구나 장식물들의 재료가 소실되기 쉽고, 보존기간들 비교적 짧은 목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또 현존고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의 자손이거나 주인인 경우가 드물어서 가구나 서화등이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가구나 서화가 남아있는 경우나 자손들이 그 집의 분위기를 대대로 계승한 경우 그 결과를 사진자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그림 2).



가. 강원도 강릉시 「강릉 오죽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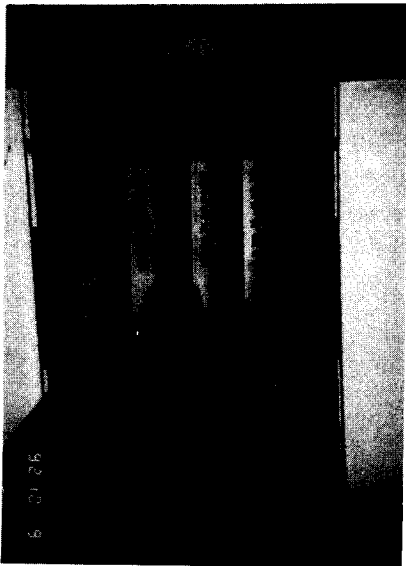
나. 경상북도 안동군 「하회 충효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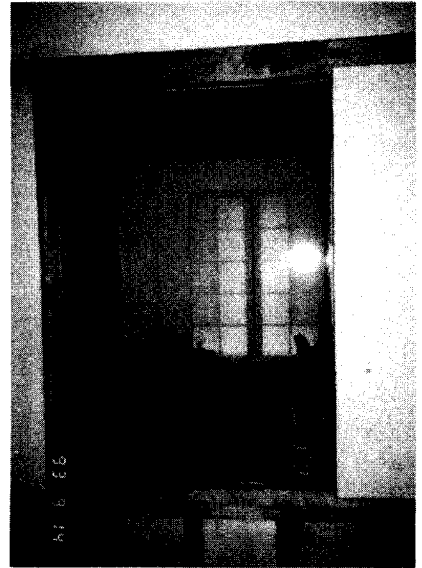
다. 경상북도 경주군 「월성 손동만씨 가옥」



라. 충청남도 홍성군 「조응식 가옥」



마. 충청남도 예산군 「김정희씨 가옥」



바. 중앙박물관 「사랑방」

(그림 2) 한국 전통한옥의 실내 분위기



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신아파트



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그림 3)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 분위기

2) 現代住宅

(1) 室內의 平面的 空間構成

現代住宅의 실내는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과 부엌, 욕실,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이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각 실의 연결이 편하며 개방적이었다(정인국, 1970). 각 공간은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거실, 식당, 욕실, 등은 공동 생활공간이 되고 침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적인 생활공간이 되었다.

조사대상지의 평면적 구성은 거의가 정형화 되어 있어 배치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2) 室內의 立體的 空間構成과 裝飾物

現代住宅의 실내는 서구적 건축양식과 입식생

활의 도입으로 천정도 높고 실내도 넓고 창도 큰 경향이였다. 가구는 서구적인 감각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실내 소품이나 장식물들도 화려하고 서구적인 분위기의 것들이 많았다(그림 3).

2 眺望

1) 傳統韓屋

자연을 숭상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속에 하나가 되어 같이 살면서 거기서 생활의 지혜와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였으며, 자연환경을 임의로 변경치 않고 자연 그대로를 자신의 삶의 일부 속에 이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최고의 삶을 추구하였다(김용범, 1987).

택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風水圖識說의 영향으로 背山臨水의 위치를 吉地로 여겼는데 (IFLA조직위원회, 1992), 이러한 위치는 앞이 트여 있고 필연적으로 주변 자연 경관이 수려하였을 것이다.

사랑채에서는 사랑방과 대청에서 사랑마당(우경국, 1986)과 자연숲으로 트인 공간으로의 조망을 주로 하였다. 대청의 문이나 방문을 통한 조망은 문이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틀안의 경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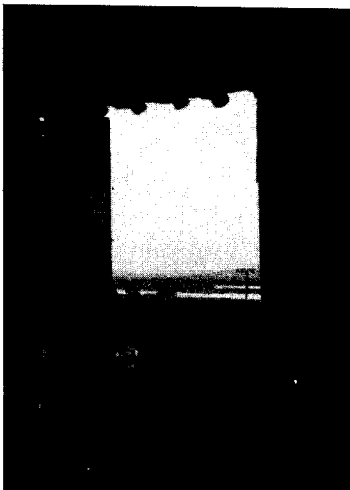
(그림 4-1) 한국 전통한옥의 전경(경북 예천군 勿替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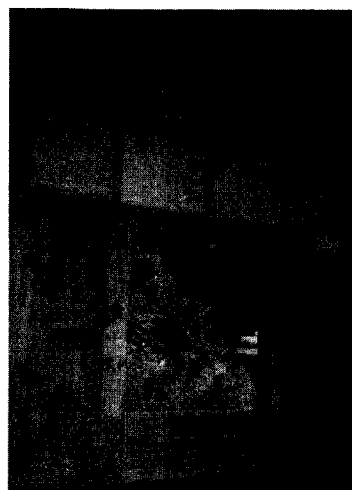
가. 경북 예천군 「물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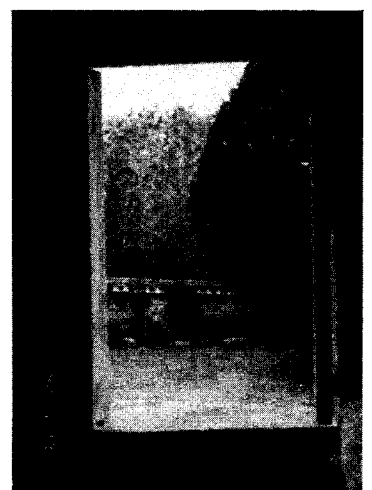
나. 충남 예산군 「이광임 선생 고택」



다. 경북 안동군 「예안 이씨 종가」



라. 경북 경주군 「낙선당」



마. 경북 경주군 「손동만씨 가옥」

(그림 4-2) 한국 전통한옥에서의 조망

한쪽의 풍경화나 정물화를 연상케 하며, 좌·우·앞·뒤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언덕을 등지고 남을 향하여 완경사를 이룬 자리를 찾아 건물을 남쪽으로 당겨지어 놓으면 후면에 경사진 넓은 공간이 남게 된다. 흙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계단형으로 장대석을 쌓아 올려 보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닿아 여러가지 꽃나무와 유실수를 심는 한편 단조로운 직선형의 지형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괴석과 세심석을 놓아 이룸하여 花階라 하였다(윤국병, 1982). 택지의 지형에 따라서는 화계를 꾸밀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풍수도참설에 부합되는 부지에 지어진 집이라면 예외없이 안채뒤에 화계가 마련되었다.

화계로 꾸며진 후정의 공간은 아녀자들을 위한 휴식 내지는 정서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며, 이 화계의 怪石과 여러가지 꽃나무들, 유실수의 변화들이 좋은 조망을 제공하여 주었다.

傳統韓屋 조사대상지의 조망상태를 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그림 4-1, 2).

2) 現代住宅

現代住宅은 일조권이 침해를 받을 정도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조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현상은 단독주택 보다 아파트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하루의 6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Manaker, G. H., 1981)은 조망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室內造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실내의 환경조절을 위해 식물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 室內植物의 導入

1) 傳統韓屋

傳統韓屋에서 식물도입의 여부는 시간적인 제

약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 시대의 실내 분위기를 묘사한 서적이거나, 실내식물의 재배에 대해 서술한 문헌들, 또는 식물을 감상한 것을 글로써 표현한 문학작품 등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傳統韓屋의 실내는 방한의 목적으로 실내에서 외부로의 열손실을 막기 위해 창을 작게 만들었으므로 실내에 자연히 어두워져 식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실내를 간결하고 단출하게 꾸미는 것을 추구하였으므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식물 한두점 이상은 놓지 않았다.

傳統韓屋에서의 식물의 도입은 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 겨울철, 혹은 군자의 기품이나 절개를 상징하는 蘭이나 盆栽 한두점을 통해 정신수양의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말엽인 890년 경에 지은 최치원의 한시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蘭을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 감상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중엽(12세기) 이후 부터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종석, 1984). 실제로 난을 가꾸어 즐기기 시작한 것을 이때로 보는 이유는 고려말 문인인 이색이나 정도전의 문집에서 난을 가꾸어 즐긴 구체적인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몽주는 어머니가 난분을 껴안은 꿈을 꾸고 낳았기 때문에 아명을 목란이라 했다는 사실이 「포은집」에 실려 있다(윤국병, 손재식, 1989).

목란화는 1300년대부터 문인, 묵용들에 의하여 즐겨 그려지기 시작하였는데 1500년대에 李 滢이 그린 춘란도는 현존되고 있는데 고서화를 통해서도 당시의 난 재배상을 추측할 수 있었다(이종석, 1987).

선인들은 대자연을 축소시켜 자기집 뜰 안에 들여 놓았으며 그것을 더욱 축소시켜 방안에 들여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분재이었다(김세원, 1989).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분재를 가꾸었는가 하는 정확한 년대를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고려말 재상이었던 전록생(1318-1375)이 8세 때 지었다는 「영분송」이라

는 시가 있는데, “산 속의 석자 높이 사시절 푸르름을 화분에다 옮겼더니 또 한번 기특하네”라고 하여 분재에 대해 시로 읊은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후 조선조 초기의 명신이며 시서화에 능통했던 인제 강희안이 저술한 「양화소록」(강희안, 1973)에서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분목으로 많이 가꾸고 있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진백 등 여러 가지 수종들의 배양법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분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종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해송, 소나무, 섬잣나무, 노간주나무, 주목, 진백, 은행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홍만선, 1982)에서는 “밤에 등불을 켜고 책을 볼 때 한 분이나 두 분을 옆에 놓아두면 등잔불 연기를 흡수하여 연기가 눈을 쓰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책을 읽는 선비들이 분재를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산(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은 「增補 山林經濟」에서 「죽자를 걸고 그 밑에 短草를 두되 그 위에 소피석 한 덩이, 소화분 한 분을 놓을 것이다.»라고 하여 傳統韓屋에서 식물의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姜希顔의 「養花小錄」에서는 실내에 들여놓을 수 있는 괴석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술하고 있으며, 屠隆의 「考槃餘事」(도유, 1972)에서는 분경의 크기가 탁자에 올려놓은 만한 것이 좋다고 하는 등 분재로서의 관상가치가 있는 모양까지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또 병화에 대해서도 “방 안에 장식으로 놓는 병화는 큰 병에 가지가 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산계의 감상용으로는 화병은 낮고 작은 것이 좋고 꽃도 산뜻한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기피해야 할 것은 번잡하고 묶어놓은 듯한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여 실내 장식용으로 병화를 도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그것을 놓는 방법도 실내를 소박하고 간결하게 꾸미는 기본원칙에 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앞서 조망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傳統韓屋에서는 문만 열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공기는 신선하였으며 푸르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므로 식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실내 식물 도입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2) 現代住宅

식물은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다(Manaker, G. H., 1981).

現代住宅에서 실내식물의 도입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방광자, 1989), 조사결과 이러한 현상은 단독주택 보다 아파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되어, 위의 여러가지 식물이 주는 효용을 누리기 위해 특히 실내 환경조절의 목적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받기 위해 실내식물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現代住宅의 실내에 도입된 식물의 종류를 보면 대개가 열대·아열대 원산의 외국식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방광자, 1989). 이러한 외국식물들은 이를 수입하는데 있어 엄청난 외화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아 관리가 까다롭고, 월동하는데 있어서도 가운을 필요로 하여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의 자생식물 중에서도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관리가 손쉬운 식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내식물이 외국식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며, 이제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나라 원산의 실내식물의 소재를 개발하는 일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傳統韓屋에서는 남녀공간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는데 안방에서는 象徴의 意味를 가진 紋樣이 있는 家具類와 屏風 書畫 등을 통하여 子孫繁昌, 長壽, 和睦, 富貴 등을 기원하고 또, 花階와 後園의 자연을 중심으로한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이 실내공간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한편 사랑방에서는 트인 공간으로의眺望을 통해 외부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이고(借景),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詩나 書畫 등을 통하여 정신수양의 지표로 삼으며, 간결한 구조의 가구와 한 두점의 절제된 식물의 도입을 통하여 통일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室內造景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現代住宅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면이 거의 배제되고 실내가구나 장식물, 실내소품 등이 서구적이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室內造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現代住宅에서는 조사결과 시각적인 면과 함께 실내 환경조절의 목적으로 실내식물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입된 식물의 대부분이 재배가 힘든 외국식물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상가치가 있으며 관리가 용이한 우리 자생식물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실내조경을 하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만 꾸밀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의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의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실내조경 요소를 현대화 시켜 도입하고 자생식물 소재를 개발, 사용하는 등 韓國의인 室內造景의 技法을 定立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현대 실내조경이 나아가야 할 바로 사료된다.

IV. 摘 要

現代 室內造景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韓國의인 室內造景의 技法定立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傳統韓屋과 現代住宅의 室內造景을 조사, 비교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傳統韓屋에서는 여러가지 家具類와 室內裝飾物, 象徵的인 意味를 강조하는 書畫類와 紋樣들, 眺望, 절제된 植物의 導入 등을 통하여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室內造景을 하였다.

2. 現代住宅에서는 화려하고 서구적인 분위기의 가구류와 실내장식물, 적극적인 식물의 도입을 통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室內造

景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대 사용되고 있는 실내 식물들이 거의가 외국식물에 의존하고 있어, 관상가치가 있으며 관리가 용이한 自生植物의 開發, 實用化의 노력이 요구된다.

4. 현대에 室內造景을 하는데 있어 선조들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실내조경을 繼承, 發展시켜 현대생활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한국적인 室內造景의 技法을 定立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引用 文 獻

1. 강희안(이병훈 역)(1973) 「양화소록」, 을유문고, pp. 25-126.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2) 「한국민속대관」, 2 p. 731.
3. 김란기(1986) “조선조 상류주택의 주거공간의 의미 분석 고찰”, 「월간 꾸밈」, 10월호, pp. 49-50.
4. 김세원(1989) 「분재」, 대원사, p. 59
5. 김용범(1987) “선인들의 이상적 거주공간 의식”, 「환경과조경」, 16:88.
6. 김원룡(1968) 「한국미술사」, 범문사, p.3, p.326.
7. 김원학(1989) 「조선조 목공예」, 국립중앙박물관, p. 148.
8. 도용(1972) 「고반여사」, 을유문고, p.174.
9. 문화재관리국(1982) 「문화재대관:보물편(목조건축)」.
10. 문화재관리국(1982)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상(가옥))」.
11. 박영규(1989) 「조선조의 목가구」, 국립중앙박물관, p. 148.
12. 방광자(1989) 「실내원예」, 대원사, pp. 86-127.
13. 배만실(1975) 「이조가구의 미」, 이대서림, pp.35-59.
14.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 하」, 열화당, p. 82.
15. 우경국(1986) “조선시대 주택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경」, 11:88-95.
16. 윤국병, 손재식(1989) 「동양란 가꾸기」, 대원사, p. 74.
17. 윤국병(1978) 「조경사」, 일조각, pp. 195-347.
18. 윤국병(1982) 「조경학」, 일조각, pp. 82-90.
19. 이종석(1987) “한국의 난초 재배역사에 관한 연구”.

- 「한국원예학회지」, 27:181-189.
20. 이종석(1984) “한국의 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3:57-64.
21. IFLA조직위원회(1992)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p. 16, p. 82.
22. 임영주(1986)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pp. 78-183.
23. 정양모(1992) 「조선시대 문방제구」, 국립중앙박물관, p. 3.
24. 정인국(1970) 「현대건축론」, 야정문화사, p. 308.
25. 정인국(1974)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p. 370.
26. 주남철(1980) 「한국문화예술대계1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pp. 57-229.
27. 홍만선(홍만식역)(1982) 「산림경제 2권(국역)」, 민족문화추진회, p. 174.
28. Manaker, G. H.(1981.) *Interior plantscapes*, Prentice Hall, Inc., pp. 14-50.